

우리나라의 개고기 음식문화에 대한 축산 전공자와 타 전공자의 견해에 관한 비교 연구

김석은

건양사이버대학교 반려동물관리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ws of Livestock Majors and Other Majors on Dog Meat Food Culture in Korea

Seok-Eun Kim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Management,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고기의 식용에 대한 문제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K대학교와 H대학의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여 성실하게 응답한 378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개고기의 음식문화에 대한 반대의 견해는 반려동물 전공자가 가장 높은 63/85명(74.1%), 다음은 기타 전공자가 107/193명(55.4%), 축산학 전공자 41/100명(41.0%) 순으로 매우 높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01$). 전체 응답자 중 개고기의 찬성은 43명(11.4%)으로 낮았다. 축산학 전공자, 반려동물 전공자, 그리고 타 전공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로써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개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음식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식용으로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다. 이제 개고기 음식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음식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bstract The population of companion animals is 15 million, and the issue of eating dog meat is constantly raised not only at home but also abroad. This study give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incere survey responses of 378 students at K University and H College in Chungnam. The dissenting opinion on the dog meat food culture showed very significant results to the extent of 63/85 (74.1%) with the highest being companion animal majors, 107/193 (55.4%) of other majors, and 41/100 (41.0%) of livestock majors ($p<0.001$). Among the respondents, 43 (11.4%) were in favor of dog meat consumption. A comparison of the view on the dog meat food culture with that of livestock majors, companion animal majors, and other majors is believed to be of great significance, as it is a very timely topic. Dogs were used as food in the absence of other adequate food sources. However, dogs are now companion animals that live with us. Hence, we believe that the dog meat food culture is about to disappear into history. Thus, food culture can vary depending on the times and circumstances.

Keywords : Korea, Dog Meat, Food Culture, Companion Animal, View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인 '한국의 한 식문화에 대한 축산 전공자와 타 전공자의 견해 비교'를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eok-Eun Kim(Konyang Cyber Univ.)

email: sekim@kycu.ac.kr

Received February 1, 2024

Revised March 4, 2024

Accepted March 8,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개는 가장 먼저 가축화되어 인간과 함께 오랜 역사를 함께 지내온 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보신문화(補身文化)가 있어 개를 식용(食用)으로도 이용하여 왔고, 지금도 육견(肉犬)을 사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관련 요식업(料食業)을 하는 이도 있다. 최근 개의 식용금지에 대한 입법제안도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슈화해서 개의 식용금지를 주장하기도 한다[1]. 우리나라는 1500만명이 반려인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살고 있다. 반려동물 중 가장 으뜸은 반려견이고, 그다음은 반려묘이다.

개고기 식용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깃들여 있으며 서민층의 극심한 체력 소모를 보충해 주는 중요한 음식이었다[2]. 개고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오던 전통음식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 절대 반대 입장이다. 개고기는 주로 과거 백제의 중심지역에서 보신탕, 수육, 전골, 두루치기, 무침, 개소주 등 식용으로 이용해 왔다[3].

인류문화의 보편적 논리와 윤리에 비추어 진화할 필요성도 있기에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을 견지한 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구의 한국 개고기 식용비난을 경청할 필요성도 있다[4].

문화 발전은 세 단계로, 1단계는 전통문화만을 고집하는 시대, 2단계는 전통문화를 열등시하는 외래문화 시대, 3단계는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발전적으로 절충 융합하는 동일성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5].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비난에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은 분명하다.

개는 아주 오래 전 음식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해 식용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반려동물로 자리 잡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플라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마음가짐이 바뀐다면 현실도 바뀐다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신연호는 애견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유무에 따라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인지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고기 음식문화에 대하여 축산 전공자는 산업적·영양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반려동물 전공자와 기타 전공자는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개고기 음식문화에 대한 축산 전공자와 타 전공자의 견해를 비교해 봄으로써 국제화와 반려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기간

본 연구는 반려인과 예비반려인 4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충남의 K 대학교와 H 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한 식문화인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를 축산 전공자와 반려동물 전공자, 그리고 타 전공자를 대상으로 400부 중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78부를 확보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개고기에 대한 전공별 견해

개고기에 대한 축산학 전공자와 기타 전공자의 견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에 잘 나타났다.

보신탕에 대한 견해는 전공 모두에서 반대(×)가 55.8%로 가장 높았으며, 중립(△)은 31.0%, 찬성(○)은 11.4%로 응답하였다. 보신탕의 반대에 대한 견해는 반려동물 전공자가 가장 높은 63명(74.1%), 다음은 기타 전공자가 107명(55.4%), 축산학 전공자 41명(41.0%) 순으로 매우 높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 < 0.001$). 전체 응답자 중 보신탕의 찬성은 43명(11.4%)으로 낮았다.

Table 1. Comparison of views of livestock majors and other majors on dog meat

Classification	○	×	△	No response	Total	Chi-square test
Livestock major	14 (14.0)	41 (41.0)	39 (39.0)	6 (6.0)	100 (100.0)	33.261 df=6 p<0.001
Pet care major	2 (2.4)	63 (74.1)	20 (23.5)	0 (0)	85 (100.0)	
Other major	27 (14.0)	107 (55.4)	58 (30.1)	1 (0.5)	193 (100.0)	
All	43 (11.4)	211 (55.8)	117 (31.0)	7 (1.9)	378 (100.0)	

3.2 개고기에 대한 성별 견해

개고기에 대한 성별 견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에 잘 나타났다. 보신탕의 반대에 대한 견해는 성별 모두 반대(×)가 211명(55.8%)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중립(△)으로 117명(31.0%), 찬성(○)은 43명(11.4%)이었다(p<0.001). 전체 응답자 중 보신탕의 찬성은 43명(11.4%)으로 그중에서 남성이 31명(14.6%)으로 여성 12명(7.2%) 보다 많았다.

Table 2. Comparison of gender opinions on dog meat

Classification	○	×	△	No response	Total	Chi-square test
Male	31 (14.6)	96 (45.3)	78 (36.8)	7 (3.3)	212 (100.0)	24.877 df=6 p<0.001
Female	12 (7.2)	115 (69.3)	39 (23.5)	0 (0)	166 (100.0)	
All	43 (11.4)	211 (55.8)	117 (31.0)	7 (1.9)	378 (100.0)	

3.3 개고기에 대한 가구소득별 견해

개고기에 대한 가구소득별 견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에 잘 나타났다.

보신탕의 반대에 대한 견해는 가구소득별로 모두 반대(×)가 211명(55.8%)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중립(△)으로 117명(31.0%), 찬성(○)은 43명(11.4%)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보신탕의 찬성은 전체 11.4%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p>0.05).

Table 3. Comparison of opinions by household income on dog meat

Classification	○	×	△	No response	Total	Chi-square test
> 50 million won	12 (8.5)	82 (58.2)	46 (32.6)	1 (0.7)	141 (100.0)	7.587 df=6 N.S. ¹⁾
50~80 million won	21 (11.7)	99 (55.0)	54 (30.0)	6 (3.3)	180 (100.0)	
< 80 million won	10 (17.5)	30 (52.6)	17 (29.8)	0 (0)	57 (100.0)	
All	43 (11.4)	211 (55.8)	117 (31.0)	7 (1.9)	378 (100.0)	

¹⁾ N.S.=Not Significant(p>0.05)

3.4 개고기에 대한 거주지별 견해

개고기에 대한 거주지별 견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잘 나타났다. 보신탕의 반대에 대한 견해는 거주지 별로 모두 반대(×)가 211명(55.8%)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중립(△)으로 117명(31.0%), 찬성(○)은 43명(11.4%)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보신탕의 반대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았는데, 중소도시에서 중립에 대한 견해가 가장 높았고, 찬성은 가장 낮았다(p<0.05).

Table 4. Comparison of opinions by residence on dog meat

Classification	○	×	△	No response	Total	Chi-square test
A big city	18 (14.0)	69 (53.5)	36 (27.9)	6 (4.7)	129 (100.0)	13.801 df=6 p<0.05
Small&medium-sized cities	16 (9.1)	95 (54.3)	63 (36.0)	1 (0.6)	175 (100.0)	
Rural areas	9 (12.2)	47 (63.5)	18 (24.3)	0 (0)	74 (100.0)	
All	43 (11.4)	211 (55.8)	117 (31.0)	7 (1.9)	378 (100.0)	

3.5 개고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개고기 식육문화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 질문에 응답한 정책적인 대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잘 나타났다. 성별로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으나, 전공별(p<0.001), 가구소득별(p<0.01), 그리고 거주지별(p<0.05)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책적인 대안으로 가장 많은 것은 54.7%의 업종 전환 지원이었고, 개고기 유통에 대한 법제화가 28.1%로 높았다. 그리고 시장에 맡겨라 순이었다. 세월이 흐르면 새로운 신문화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개고기 식육문화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Table 5. A policy alternative to dog meat

Classification		Support	Breeding	New culture	Legalization	Market (time)	The others	Total	Chi-square test
Gender	Male	87 (50.0)	2 (1.1)	7 (4.0)	56 (32.2)	11 (6.3)	11 (6.3)	174 (100.0)	7.216 df=5 N.S.
	Female	88 (60.3)	5 (3.4)	7 (4.8)	34 (23.3)	6 (4.1)	6 (4.1)	146 (100.0)	
Major	Livestock	42 (54.5)	2 (2.6)	3 (3.9)	29 (37.7)	0 (0)	1 (1.3)	77 (100.0)	28.435 df=10 p<0.001
	Pet care	53 (66.3)	0 (0)	4 (5.0)	18 (22.5)	0 (0)	5 (6.3)	80 (100.0)	
	The others	80 (49.1)	5 (3.1)	7 (4.3)	43 (26.4)	17 (10.4)	11 (6.7)	163 (100.0)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50	64 (52.5)	4 (3.3)	9 (7.4)	28 (23.0)	13 (10.7)	4 (2.7)	122 (100.0)	23.320 df=10 p<0.01
	50~80	78 (52.7)	3 (2.0)	4 (2.7)	50 (33.8)	4 (2.7)	9 (6.1)	148 (100.0)	
	<80	33 (66.0)	0 (0)	1 (2.0)	12 (24.0)	0 (0)	4 (8.0)	320 (100.0)	
Residence	Big city	59 (56.2)	6 (5.7)	5 (4.8)	26 (24.8)	6 (5.7)	3 (2.9)	105 (100.0)	18.460 df=10 p<0.05
	S&M	78 (52.3)	0 (0)	4 (2.7)	51 (34.2)	7 (4.7)	9 (6.0)	149 (100.0)	
	Rural	38 (57.6)	1 (1.5)	5 (7.6)	13 (19.7)	4 (6.1)	5 (7.6)	66 (100.0)	
All		175 (54.7)	7 (2.2)	14 (4.4)	90 (28.1)	17 (5.3)	17 (5.3)	320 (100.0)	

동물에 대한 법적인 지위는 1988년 『오스트리아 민법』전으로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에 이어 2015년 프랑스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고[6], 우리나라도 민법 제98조 제2항에 신설하기로 지난 2021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동물은 재산에서 반려로, 그리고 권리로 그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과 유통 등의 종식에 관한 ‘개 식용 금지법’이 행정예고 되었다.

반려동물인 개를 대신할 보신탄으로는 초식동물인 염소 고기를 즐겨 먹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하여서 개고기를 먹었지만, 요즘은 대체재가 넘쳐난다.

4. 결론 및 제언

국내 반려인구가 1,500만명으로 전국민의 1/4이 넘게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식용으로 먹어오던 개고기 식용문화는 억

지로 없앨 필요가 없어 보인다. 때가 되면 식문화는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좀 더 때를 기다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설문을 통한 조사에서 보신탄의 반대에 대한 견해는 반려동물 전공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 전공자, 축산학 전공자 순으로 매우 높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p<0.001$).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문화를 타하는 외국인들의 주요 타깃도 비위생적이며 혐오스러운 도살장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설문에 응답한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보신탄은 주로 지금의 노년층에서 주로 즐기고 있기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의 개고기 음식문화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고기 음식은 개장국으로 불리던 것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보신탄’으로 명명한 뒤 70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때에 ‘개식용 금지법’(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로 향후 3년 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개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는 동물이고, ‘가족’이란 학명이 붙은 동물은 [개(*Canis lupus familiaris*)] 뿐이다[7].

우리가 먹고사는 것은 시대에 따라 연령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된 개고기 음식문화에 대한 미련보다는 새로운 먹거리의 개발을 제안한다. 음식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ferences

- [1] J. B. Park, *A Study on the Debate upon Legalization of Edible Dog's Meat and Hygienic Matter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pp.30-31, 2004.
- [2] J. Y. Jeong, G. B. Yun, "An attitude survey of religious believers on Korean culinary culture taking canine flesh-focusing on the case Daesoonjinrihoe-", *Korean Society of the New Religion, A New Religion Study*, Vol.32, pp.25-62, April 2015. DOI: <http://doi.org/10.22245/ikanr.2015.32.32.25>
- [3] Y. G. Ann, "Dog Meat Eating History and Culture in Korea", *Korean J. Food & NUTR.*, Vol.12, No.4, pp.387-396, Aug. 1999.
- [4] J. K. Park, "Is Dog-eating Culture Barbarous or a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From the Cultural Relativism View Point", *Korean Tourism Association, Tourism Research*, Vol.41, No.10(Total 156), pp. 217-234, Nov. 2017.

DOI: <http://doi.org/10.17086/JTS.2017.41.10.217.234>

- [5] Y. H. Kim, "The Limitations of Cultural Relativism and Cultural Criticism of Dog-Eating", Institute of Humanities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tudies in Humanities*, Vol.10, pp.339-354, Dec. 2002.
- [6] Y. H. Shin,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et Dogs between Companion Animal Majors and Non-Major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2, pp.777-784, Feb.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2.777>
- [7] M. P. Park, "A Study on Discussion of Animal Status and Legal Implication-Focusing on from Property to Companion and Rights-", *Research on Law(Yonsei Law Review)*, Vol.28, No.1, pp.269-301, March 2018.
DOI: <http://doi.org/10.21717/vlr.28.1.9>

김 석 은(Seok-Eu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2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89년 12월 ~ 2023년 8월 :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LINC3.0 사업단
- 2019년 3월 ~ 2022년 6월 :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과 강사
- 2023년 9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반려동물관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축산경영, 반려동물